

익산형 푸드플랜 마련 속도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먹거리 컨트롤타워 역할 가공·유통·소비까지 잇는 선순환 조달체계 구축 목표

익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자원을 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먹거리 공급시스템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익산형 푸드플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익산형 푸드플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공의 관점에서 익산의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로컬푸드와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설립심의 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운영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운영주체 설립에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6대 전략 10개 전략과제, 72개의 세부사업이 제안됐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가공식품 생산으로 지역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다양한 인증제 도입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산물의 지역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 확대로 먹거리 소비자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지역 여건이 반영된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 영역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로 공유하고 소통해왔으며 관련 전문가와 생산농가의 의견이 최종 용역 결과에 반영됐다.

익산형 먹거리전략이 본격화되면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소농과 고령농까지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부가가치의 지역 환원이 가능해져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전략으로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선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 군산항 방문

신규 물동량 유치 방안 마련 등

군산시는 신현승 부시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물동량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해 군산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컨테이너화물량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환적차량이 줄었고 일반화물도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입항 선박과 화물 모두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이후로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들어 일반화물 유치를 위해 군산시는 대면·비대면 포스트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도내 기업체 중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체

를 중심으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유관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13일에 열렸던 코로나19 위기 극복 군산항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검역 및 통관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군산시는 검역소와 세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에 항만시설사용료와 부두임대료 등 항비 감면을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특송장지장과 콜드스틸 탱크 도입 등 항만물류인프라 개선을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와 군산해수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예치료 지원사업 확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활성화와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의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이 꺼려지게 되면서 많은 도시민이 불안함과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 등 정서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느끼는 정서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내 원예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치유농업이 도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보편적인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보호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 사회적 소외시설부터 관련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나갈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치매예방교실 운영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을 위해 활동 등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인 '두뇌년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10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9회로 나눠 실시되며 치매전문인력(직업치료사: 박현아, 백성훈)이 복지관을 방문해 진행한다. 자납력, 기억력 및 회상, 집중력, 계산력, 판단력 등 9개 분야 인지 영역들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재미있게 인지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매 선별검사, 노인 우울증 개선 서비스 제공 교육 시작 전·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이런 좋은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즐겁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16번째 확진자 발생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최초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돌아다닌 군산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A(20대)씨는 지난 15일 코막힘 등 증상이 최초 발생했으며 군산 소재 이비인후과에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20일 오후 3시 30분경 군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21일 새벽 4시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지역 음식점, 대전, 홍성, 편익점 병원, 직장, 코인노래방 등 여러 동선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를 동선 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역을 실시하고 A씨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확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동선이 많아 지역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7일부터 군산지역에 발생한 확진자가 이날까지 총 6명으로 지역에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 및 선별진료소 24시간 확대운영,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엄중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꼬꼬마양배추 기능성물질 추출기술 개발 순조

군산시가 지역의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꼬꼬마양배추의 기능성 물질인 MMSC(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 성분 추출 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꼬꼬마양배추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삼부지킴퍼니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MSC 추출기술 개발사업을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전병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왔다.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식품소재와 의약품원료를 생산

하는 관련 업체들의 상담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소재를 생산하는 D사의 관계자는 "MMSC를 이용한 일본의 특제품이 국내에서만 연간 100억원 가량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MMSC 추출 기술이 개발된다면 소재산업으로 연간 300억원의 시장규모가 될 것이며 소재를 이용한 식품과 의약품 산업은 연간 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속칭 비타민U로 알려진 MMSC 성분은 위장벽을 보호하고 소화촉진, 소화불량 해소 등 건강한 위장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일석삼조'

청년 취업난 · 중소기업 운영난 해소 · 인구 유입 등

익산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총 144개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면서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운영난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정안전부 사업을 지역 산업구조에 맞게 주얼리기업 인력양성, 식품클러스터 맞춤형 인력양성 등 8개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난해부터 총 79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올해 익산시가 확보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30억원으로 참여기업들이 채용한 청년 인건비를 약 2년간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출퇴근 부담을 줄여 이직률을 낮추고 있다.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로 별도 편성했다. 시는 특히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 중 타 지역인일 경우 익산시 정착을 적극 유도하여 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하여 고용 기간 동안 직무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김모씨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

리 사업으로 고용도 보장되며 걱정 없이 익산으로 이사왔다"고 말했다.

한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업체들도 청년들의 대도시 유출로 겪은 직원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익산시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기는 분위기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익산시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이어내년에도 구비 등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